

1. 갈래와 상관없는 문학 독해의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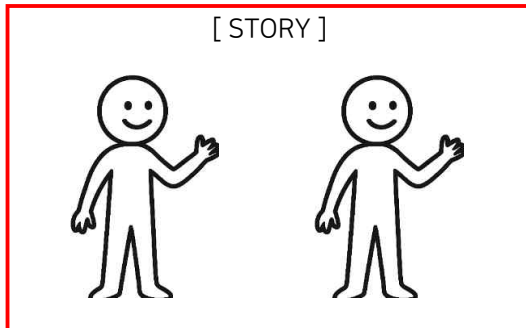
(A) 배경 체크

배경은 어떤 갈래에서든 그 작품의 story가 전개되는 '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 해주는 것이 좋다.

- 배경의 2가지 종류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

앞서 배경은 그 작품의 story가 전개되는 '틀'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 보면, 등장인물들이 액션을 취할 때, 항상 그 액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속해있다. 심지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소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그림에서 저 빨간색 박스가 바로 '틀'이 되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경은 어떤 story의 '틀'이 된다.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인간은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존재하듯이 말이다.

- 배경이 나오면 반드시 손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자

시간적 배경에는 '< >' 표시, 공간적 배경에는 '()' 표시를 남긴다.

(B) 심리 체크

심리는 문학의 본질이다. 문학이 비문학과 구별되는 핵심이 바로 '심리의 유무'다. 등장인물 또는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심리, 반응 태도가 등장하면 반드시 확보해 주어야 한다.

(C) 변화 여부 체크

문학 작품에서 어떤 요소가 변할 때 예리하게 캐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배경'이나 '심리'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작품의 서술 양상뿐만 아니라 문제까지도 직결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2. 현대 시

(A) 문학 독해의 기본

- (1) 제목부터 볼 것
- (2) <보기> 활용할 것
- (3) 각주 (*~~ 형태로 각주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독해에 활용할 것)

(B) 당연히 지켜야 하는 문학의 기본 원칙

- (1) 배경 체크
- (2) 반복 (유지) or 변화 여부 체크

(C) 현대 시란 무엇인가?

현대 시는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아래 내용을 생각하며 시를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힐 것이다.

- 인간의 삶과 마음에 관한 비유와 상징 (내용)
- '정서, 태도'를 담은 텍스트 (형식)

결국 모든 시는 위 두 가지 문장으로 귀결된다.

일단 내용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면,

모든 현대 시는 인간의 삶과 마음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학이다. 보통 현대 시를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게 대체 뭘 소리지..? 그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런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면서 독해 중간중간 멈칫하는 순간 많다는 지점이다.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아 어차피 이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삶이나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걸 빙빙 돌려서 이렇게 표현해놓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독해가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뇌피셜이 아니다. 다음 기출 지문을 봐보자.

<2009학년도 수능 #32>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32

이 문제의 5번 선지의 O/X를 판단해보자.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
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O / X)

여기서

"아니 이게 인간의 삶을 이해한 건지 어떻게 아는
거임? 그냥 김광규씨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 아닌
가? 이걸 어떻게 인간 전체로 확장하지?"
하면서 틀렸다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이제 그냥 위에서 설명한 개념을 암기하도록 하자.
모든 현대 시는 '인간의 삶과 마음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다. 고로, 이 선지는 당연히 맞는 선지다.

평가원에서 오판설로 저 선지를 맞다고 했기에, 앞
으로도 저 워딩이 나오면 같은 논리로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게 사실 현대 시 독해의 핵심이다.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면 파악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 시를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는 것은 현대시 그 자체가 아니라 '현대시 수능 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학생이 작가의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다 아신다. 따라서, 일단 '현대시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아래의 내용만 빠르게 뽑아내면 된다.

'화자가 어떤 시적 대상을 보고 뭘 느꼈는가?' 이것을 찾아내면 끝난다.

->

화자 ⇒ [시적 대상 ⇒ 반응 태도 (심리)]

고로, 항상 이런 판대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대상과 그 대상을 보고 느낀 심리를 찾는 데만 집중하자.

(D) 현대시의 세 가지 타입

현대 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TYPE 1. 화자가 아닌 대상(1)	TYPE 2. 화자가 아닌 대상(2)	TYPE 3. 대상이 화자 자신
화자가 아닌 외부 대상 ↓ 정서, 태도	화자가 아닌 외부 대상 ↓ 정서, 태도 이미지 중심시 (묘사)	화자 자신의 상황, 처지 ↓ 정서, 태도

TYPE 1. 화자가 아닌 대상 (1) - 가장 일반적인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TYPE 2. 화자가 아닌 대상 (2) - 이미지 중심시 (Rare)

가장 Rare한 형태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이미지 중심시' 라고도 하는데, 대상에 대한 정서, 태도가 모두 배제되고 오로지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시다.

TYPE 3. 대상이 화자 자신

대상이 외부 대상이 아닌 화자 자신의 경우,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E) 현대시 독해 포인트

일단 앞서 확보했던 현대 시 독해의 핵심,

‘화자가 어떤 시적 대상을 보고 뭘 느꼈는가?’ 이것을 찾아내면 끝난다.

->

화자 ⇒ [시적 대상 ⇒ 반응 태도 (심리)]

고로, 항상 이런 판때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대상과 그 대상을 보고 느낀 심리를 찾는 데만 집중하자.

바로 이 판때기가 전부이긴 하다.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위 판때기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1. 반응 태도 (심리)를 뽑아낼 때, 시어 글자 그대로 의미를 뽑아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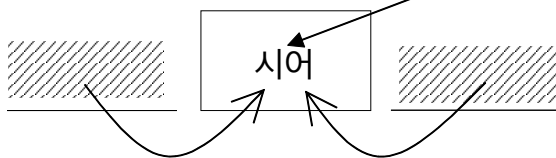
주로 감정을 담은 ‘수식어, 서술어’로 반응 태도를

‘이면적 의미를 끌어내려는 해석 없이 글자 그대로’ 뽑아내면 된다.

✓ 이때, 시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해석,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뽑아내라는 말이다. 이면적 의미를 끌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 여기서 감정이라고 꼭 ‘기쁘다, 슬프다’ 이런 기본적인 기분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의 ‘주관’이 들어간 말이면 전부 확보해 주면 된다.

✓ 이미지로 이야기해보면, 보통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한 주관은 아래와 같이 드러난다.



위와 같이 어떤 시어에 대한 화자의 내면 심리(주관)는 그 시어의 의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 주변에 있는 수식어나 서술어가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시어가 아무리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시어를 긍정하는 수식어나 서술어가 붙으면 그 시 한정해서는 그 시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2. 시어 - 시어 사이의 관계 확인

하나의 시에 시적 대상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각 연 내에서도, 그리고 각 연을 넘나들면서도 시어 간 관계를 파악해줘야 한다.

유사, 상응되는 시어인지 ⇔ 상반, 대비되는 시어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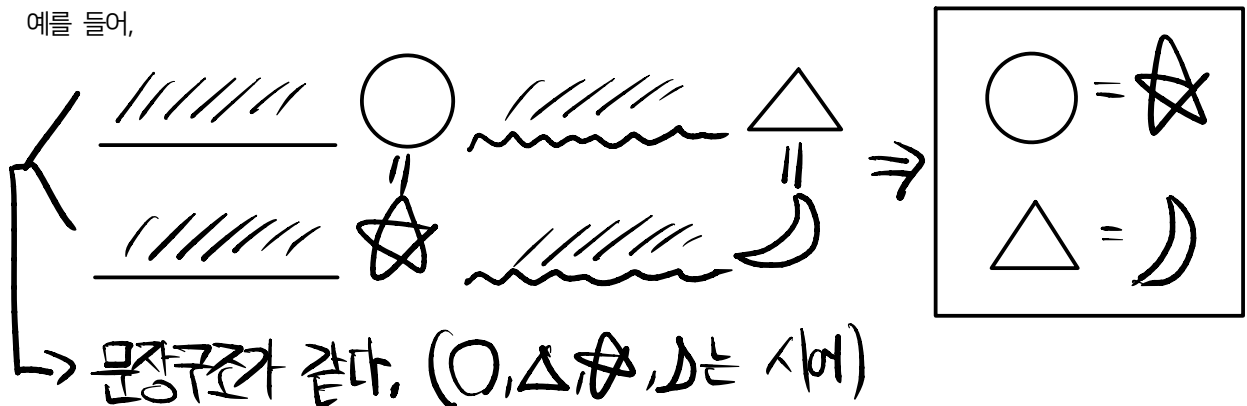
파악하라는 말이다.

✓ 시어가 유사한지 상반되는지 여부는 역시 그 시어에 주변에 붙어서 시어를 서술하는 수식어나 서술어가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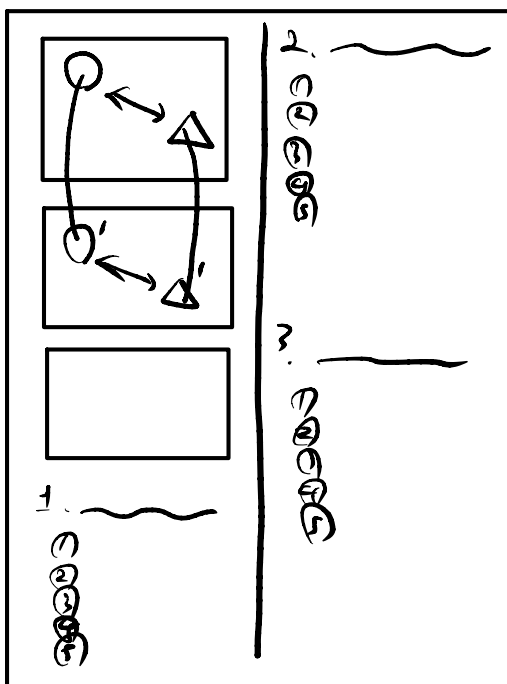
✓ 보통 화자가 [긍정하는 시어 vs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되나,

✓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는 심리인 경우에는 문맥상 의미로 그때그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통사 구조(문장 구조)의 유사성 개념이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 실제로 시를 읽을 때 이음메로 시어끼리 연결하며 읽는 것이 좋다.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다.



(보통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어는 O,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어는 Δ 표시하는 편이다.)

(F) 현대시 출제 포인트

현대시의 핵심은 바로 '정서, 태도'. 따라서 독해 포인트도 정서, 태도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문제도 정서, 태도를 잘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1. 정서, 태도 IN-OUT

지문에서는 정서 A가 제시되었는데, 선지에는 '~A, K'로 출제되는 경우

2. 정서, 태도의 주체 확인 (주체 IN-OUT)

지문에서는 제시된 정서가 '화자의 정서인지 시적 대상의 정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읽을 때부터 잘 구별하면서 읽었어야 한다. 시적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에, 정서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3. 정서, 태도의 범주 확인 (범주 IN-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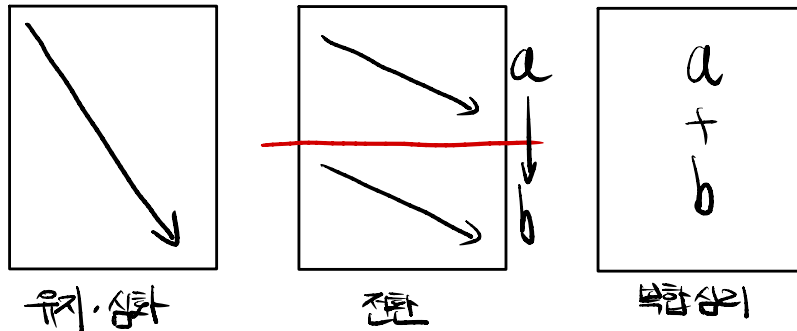
지문에서 정서를 잡을 때, 그 정서가 어떤 시적 대상을 보고 나온 정보인지, 다시 말해 어떤 위치에서 등장한 정서인지도 잘 구획할 필요가 있다.

A -> a / B -> b 이렇게 판때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선지에서 A -> b가 맞냐고 판단하라고 하면 당연히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한다. (범주 OUT)

(G) 현대시 배경지식

문학 개념과 관련된 배경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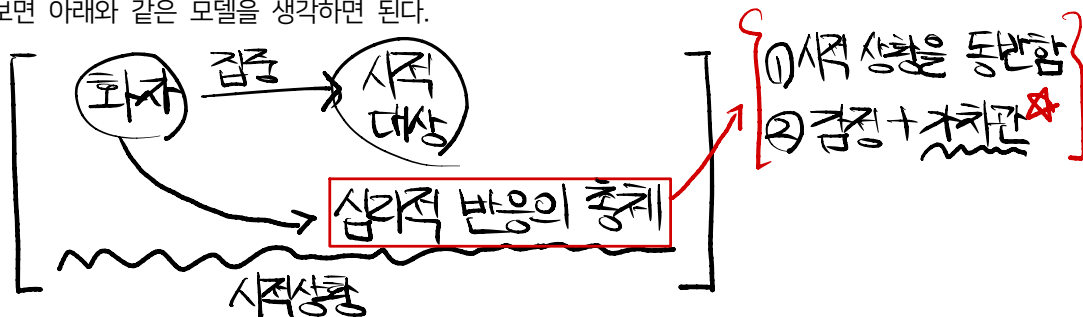
1. 시상 : 정서의 흐름



특히 복합 심리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때, 함부로 정서의 전환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2. 정서, 태도의 특징

꼭 화자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에는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은 모델을 생각하면 된다.



정서, 태도는 이렇게 화자가 특정한 시적 상황에서 어떤 시적 대상을 보고 느낀 심리적 반응의 총체다.

따라서 정서, 태도는 항상

- (1) 시적 상황을 동반하고,
- (2) 화자의 감정과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3. 화자의 개념

화자: 작품 속, 작가(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 화자는 작가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 -> 1인칭 대명사 '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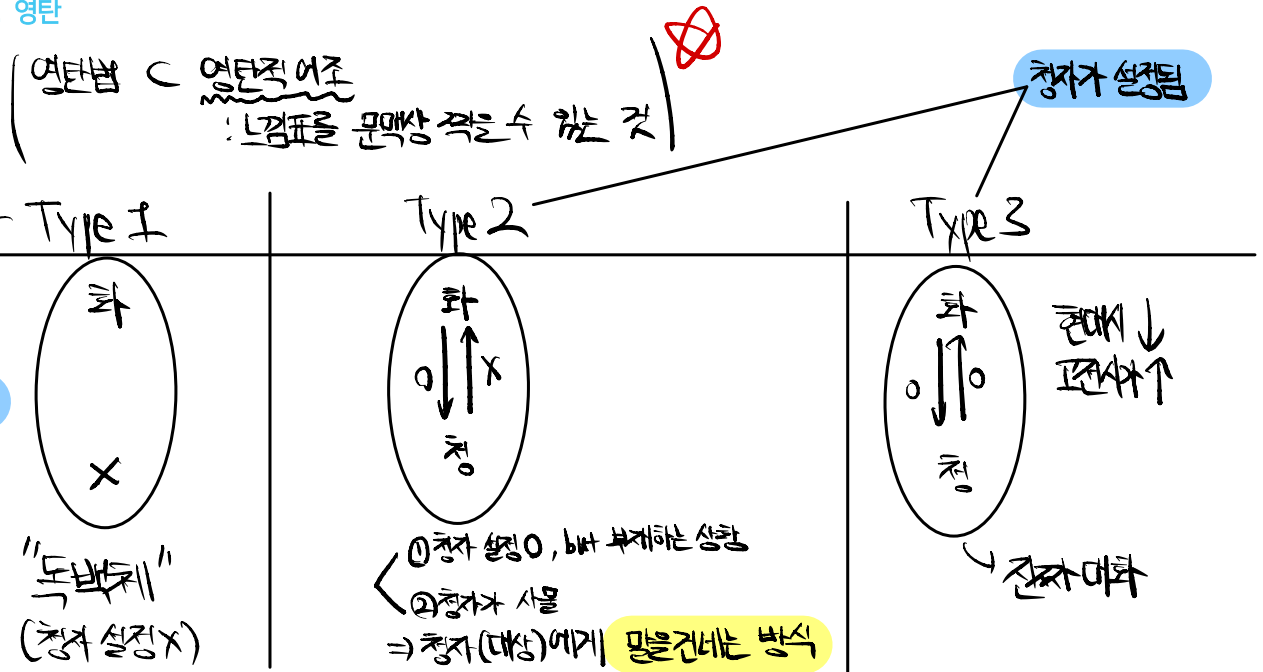
이때, 자아 성찰의 시인 경우, <보기>에서 작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4. 청자의 개념

청자 : 작품 속, 화자가 말을 건네는 허구적 존재

- 청자는 독자와 다르다. 시 속에서만 설정되는 것이다.
- "청자가 설정되었다." -> 시를 읽을 때 확보해야 한다. 2인칭 대명사나 호격 표현을 통해 확보한다.

5. 영탄



6. 자아 성찰



- 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봄
- ②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봄 (11, 그 나무)
- 반성 0 : 내성
- 반성 X : 조건은 '고독'

7. 동일시

- 화자의 처지와 시적 대상의 처지가 동일시된다. (11학년도 <그 나무> 지문 참고하면 된다.)
- 화자가 시적 대상과 자신을 묶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동일시를 의심해보자.

8. 시간(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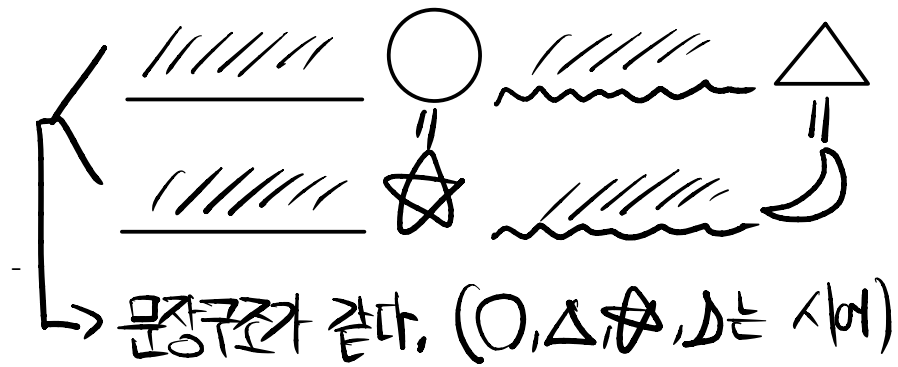
- 현대 소설과 같이 과거 장면이 삽입되지는 않는다.
- 시간 표시어나 어미 '-었-', '-던-'등으로 확보하면 된다. 이때, 어미는 깜빡하고 지나칠 수 있으니 특히 어미에 집중하며 확보해주도록 하자.

9. 비유

- 직유 / 은유 / 의인 : 감정, 인칭 대명사, '사람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
- 선지에서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나면, "있겠거니~"하고 다시 돌아가서 찾으시면 된다.

10. 대구적 표현

-> 유사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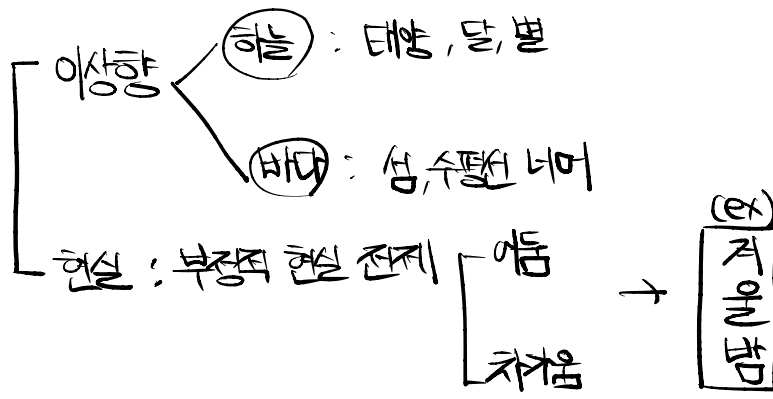


시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같다. 하지만, 내용적인 배경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있다. 항상 나오는 상투적인 내용, 그 상투적인 내용을 상징하는 상투적인 소재가 있다. 그 소재를 평소에 알고 있다면, 해당 내용의 현대시가 출제되었을 때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보통 <보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모로 미리 알고 들어가야 할 지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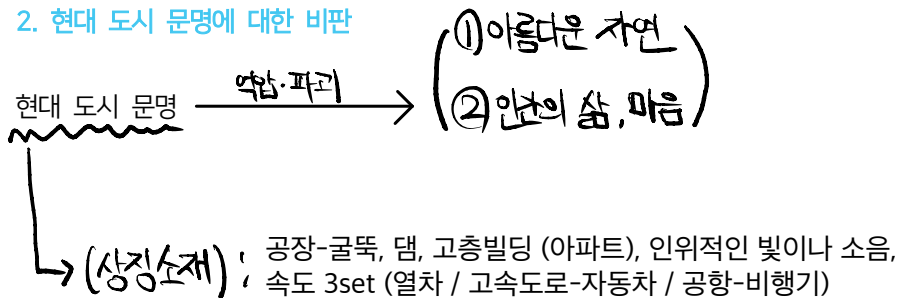
1. 현실과 이상의 괴리(= 서로 어긋나 동떨어져 있다.)

보통 현대시는 부정적인 현실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부정적인 현실과 대비되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통 아래와 같은 소재가 활용된다.



이런 소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이거 뭔가 부정적인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향 같은데?'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저 소재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쉽게 생각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달나라'를 생각해보면 된다.

2.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이렇게 현대시에 전제되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 [현대 도시 문명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인간의 삶과 마음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상황]으로 전제되는 시들이 있다. 이때, 위와 같은 소재가 주로 '현대 도시 문명'을 상징한다.

쉽게 생각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공장과 굴뚝'을 생각해보면 된다. 거기서 이상향이 바로 '달나라'로 상징되고,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바로 '공장과 굴뚝'으로 대표되는 현대 도시 문명이 '나의 가족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상황'인 것이다.

3. 소시민 : 사회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경시 / 개인의 삶과 행복만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소시민을 비판하는 현대시가 종종 있다.

- 이때, 보통 화자 자신이 소시민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그 소시민의 시각에서 [서민, 민중, 사회적 약자]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주목한다.
- 시적 대상이 [서민, 민중,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다.
- 앞서 공부했던 현대시에서 파악해야 하는 판때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서민, 민중, 사회적 약자]가 고통 받음 -> 연민을 느낌

[서민, 민중, 사회적 약자]가 서로 연대, 화합하고 공동체성을 보여줌 -> 예찬함

보통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